

Stereo Sound

특집1 충실한 슈퍼 미들 클래스 스피커
특집2 시장에서 뒤편 중인 컴포넌트 21
내 방의 베스트 사운드 - B&W와 마틴 로건의 공존

WINTER 152 2004 No.

계간 스테레오 사운드 NO.152 2004 [한국판 겨울호]

문화관광부 선정 제10회 우수 잡지



평범한 고음역과 강화된 저음역 아르페지오의 압도적인 파괴력

단단한 저음을 얻기 위해 단심 구조를 채택한 에비던스 오디오의 리릭 HG는 저음역을 강화시켜 부풀지 않은 탄탄한 저음역을 들려준다. 저음역이 강화된 대신 상대적으로 고음역은 평범한 편이지만 제니퍼 윈즈의 보컬에서는 촉촉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살집도 조금 더 붙은 듯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사진·정수원 글·문한주(오디오 평론가)



케이블이 양손의 균형을 잘 맞춰 나오는 편이라면 에비던스 오디오의 리릭은 왼손에 무게가 더 실린 듯 들린다. 그렇다고 저음역이 기본 나쁘게 뭉쳐지거나 배경이 어수선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음계가 튀어나오도록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연주자가 양 볼에 바람을 불어넣고 어깨를 좀더 들어 약간 무리해 힘 있게 치는 듯한 느낌. '타이밍' 면에서 보자면 에비던스 오디오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에서도 그랬듯 딱 떨어지는 급발진의 소리를 내주지 않는다. 음의 첫 가격(加撃)은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진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에 비하면 조금 빠르게 느껴진다. 이런 약간의 쿨럭거림과 에너지가 실린 저음역이 합쳐지면 건반 위아래를 연속으로 미끄러지며 오르내리는 아르페지오에서 갑자기 중력이 늘어난 것 같은 압도적인 파괴력을 느끼게 된다. 모범적인 재생 타입은 아니지만 거부하기 힘든 매력. 반면, 한편에 치우친 특색을 가진 인터커넥트 케이블들이 그렇듯 고음역에는 그다지 공기감이 충분하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약간은 단순화된 느낌으로 시스템의 고음역 해상력을 깎아 먹는 효과도 있는 듯하다.

EVIDENCE AUDIO Interconnect Cable THE LYRIC HG

₩33,000(1m)

- 도선 : IGL 동선 ●규격 : 20WAG
- 절연재 : 폴리프로필렌 ●피복 : PVC
- 문의 : (주)퍼트라 02949-0431

리릭 HG 인터커넥트 케이블이 저음역은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고음역은 희생된 편이지만 제니퍼 윈즈의 보컬을 들어보면 힘을 빼고 부르는 창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목소리는 촉촉하고 따뜻하며 살집도 조금 붙은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좀더 조용한 곡에서는 이 케이블의 단점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베이머스 블루 레인코트(Famous Blue Raincoat)' 같은 호소력 있고 사색적인 분위기의 곡에서는 공기감은 덜하고 단조롭고 답답하게 들려 평범한 노래인 듯 느껴진다. 즉, 가수가 지닌 매력을 100% 뽑아주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고해상도 오디오 기기의 모든 매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리릭 HG와 유사한 인상을 주었던 제품이라면 NBS 케이블을 꼽을 수 있을 듯 싶다. NBS에 비하면 리릭 HG가 가격도 싸고 성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케이블 회사는 자사의 인터커넥트 케이블이 가진 차별성을 소개할 때 선재의 심선 굵기나 순도에 중점을 두거나 실드에 신경 써고 주파 노이즈의 차폐에 대한 면을 강조하거나 절연체의 유전율이 낮고 커패시턴스가 적은 것을 자랑한 것에 비해 에비던스 오디오는 색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호에 실린 사이렌 스피커 케이블에서 소개한 것처럼 에비던스 오디오는 부풀지 않은 탄탄한 저음역을 얻으려고 단심선을 이용한 케이블을 설계했다. 리릭(Lyric) HG(Hi Gain) 인터커넥트 케이블 역시 단심선 두 가닥과 실드로 구성되었다. 폴리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을 들어보면 통상적인 인터커넥트 케이블에 비해 좀더 굵직하게 들린다. 반덴헬 MCD-501 인터커넥트